

東洋人の 人生觀

金斗憲

—

무릇 人間社會의 思想과 文獻은 어느 것이나 반드시 自然과 歷史의 規定을 받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곳(處)을 달니하고 때(時)를 달리함에 따라 제작금 特殊한 形象을 가지게 됨은 必然한 일이다. 그리하여 모든 思想文化의 健全한 發達을 期하기 爲하여서는 먼저 그 普遍的 本質을 把握한 同時에 他方으로 그 特殊性이 어떠한 것인가를 究明함이 至極히 重要한 일이다. 現下 世界의 情勢는 必야흐로 一大 轉換期에 臨하여 모든 部門에 있어서 新秩序를 要求하게 되었거니와 그 中에도 東亞 諸 民族의 共存共榮의 길을 確立함은 우리 切實한 課題로 되어 있다. 이러한 見地에서 이제 東洋人의 가지고 온 바 人生觀이 어떠한 것인가를 一考함은 大綴히 意味 깊은 일이다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넘어나 큰 問題인 만큼 簡單히 이것을 解明하기 難하나 몇 가지 共通된 特質을 들어 말함은 그다지 徒勞의 일일 아닐 것이다.

大體로 東洋思想이라하면 印度에서 이러한 佛敎, 支那에서 이러한 儒敎와 道敎, 그리고 日本의 神道を 들 수 있을 것이다. 特히 支那에 있어서는 일찍이 周末에 楊鶯이 獨特한 思想을 비롯하여 이른바 諸子百家의 思想이 있었으나 楊鶯의 思想은 그後에 아무런 發展을 일우지 못하였고 法家, 名家, 縱橫家 等等은 人生觀에 對하여 그다지 불만한 것이 없다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다만 墨子의 提唱한 바 兼愛交利의 思想은 오늘날 西洋思想에 比較하여 불 만한 것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儒家들이 極端으로 排斥하였고 孟子와 같은 이는 楊墨의 徒를 말하되 禽獸에 가까웁다 하였음은 넘어나 沒理解한 酷評이라고 아니할 수 없거니와 何如間 거기에도 若干 東洋의 特色을 看過할 수 없을 것이다. 支那에 있어서는 本來 北方에서 儒敎가 發生하였고 南方에서 道敎가 發生하여 思想의 二大 源流를 일우었으나 -이 南北의 起源設에 對하여서는 多少 異論이 있으나 -그 根源은 共通하여 佛敎의 影響을 받은 後로는 드디어 合流하였고 宋代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性理學을 일우어 支那人의 獨特한 人生觀을 樹立하였다.

이에 儒佛道 三教는 各自의 敎學으로서 또는 三教合一의 結成으로서 된 性理哲學으로서 넓이 東洋人의 人生觀의 根據를 일우었으나 마침내 日本의 神道思想은 이것을 全面的으로 吸收하여 統一있는 發達을 일우었다. 다만 李氏 朝鮮에 있어서는 性理學의 一派인 朱子學을 거이 國敎로 삼고 排佛興儒의 國策을 取하였으나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本來 性理學이 儒佛道 三教合一의 結果로서 된 것임에 不拘하고 儒佛 對立의 見解를 取하게 되었음은 一見 奇異한 感이 不無하다. 그뿐 아니라 道敎로 말하면 老莊의 根本思想이 그대로 發展을 일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 末端인 神仙思想같은 것이 流布되었음은 可惜한 일이었다. 그리고 보면 李朝 社會는 思想上으로 보아 至極히 不健全한 狀態에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人生觀이 또한 堅實치못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그다지 큰 失言은 아닐까한다. 이제야 知識을 널리 世界에 求하고 새로운 世紀를 末地함에 當하여 確乎한 人生觀을 樹立함은 우리의 要務가 아닐가?

二

東洋思想이라 하면 大略 如上의 範圍를 말한 것이려니와 一般으로 그 特殊性을 말한다면 그것은 西洋思想과 區別하여 본 것임은 勿論이다. 사람에 따라 또 그 觀點에 따라 應當 여러 가지 見解가 있을 것이나 여기에는 그것을 詳論할 餘暇가 없으므로 가장 主要하다고 볼 만한 몇 가지를 들어보고 저한다.

첫째로 人生의 窮極의 目標를 主靜的으로 생각하는 點이다. 여기에 靜의 이라함은 惑은 招活動的이라고는 할지언정 無活動을 意味한 것이 아니요. 한갓 精神的 平靜을 道德의 目的으로 삼는 다는 것이다. 일찍 中原의 모든 思想의 根源이라고 볼만한 周易에는 太極을 宇宙의 本體로 삼고 陰陽 動靜의 兩儀로서 萬物의 生成을 說明하였음은 이미 著明한 일이어니와 이것을 繼承한 後代의 思想家들은 거이다 人極의 目標를 主靜的으로 생각하였다.

가장 그 顯著한 것을 말하자면 宋對의 性理學을 들 수 있을 것이니 宋學의 先驅 周濂溪는 곧 主靜立極으로서 敎學의 根本을 삼았다. 그의 太極圖說에 依하면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性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基根』이라하여 宇宙萬物이 陰陽動靜으로서 生하는 過程을 說明하고 이어 이것을 人生의 問題에 이끌어 말하되 『聖人定之, 以中正仁依, 而主靜立人極』이라하여 이 主靜立人極의 道를 體得한 聖人의 境地를 말하되 『故聖人與天坤合基德, 日月合基明』이라하였다. 그가 말하는 聖人의 境涯는 體動을 삼가이하야 寡欲에 이르고 寡欲하여 無欲에 이르고 無欲하여 靜虛動直에 이르고 靜虛動直하야 明迓公搏의 銖에 達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周子の 主流를 받은 宋明의 綜合哲學者들이 일우어 낸 人生觀은 모다 그 窮極에 있어서 主情的이러니와 元來이 性理學의 根幹인 儒佛道 三敎가 다 그 根本에 있어서 또한 主情的인 것이다. 儒敎의 根本 精神을 要約하게 說明한 것은 곧 大學의 三綱領이라 하겠으니 明明德, 親民, 止於至善의 三道念은 各自 別個의 것이 아니라 一連의 關係를 가진 것이다. 이 明德이라는 것은 朱子の 解釋에 依하면 『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라 하였으니 곧 宇宙의 實體를 말한 것이요, 人間에 있어서의 天理를 말한 것이니 그 本質을 말하자면 虛靈不昧라는 것이다. 그러면 明明德은 이 絶對靜虛한 人間의 本體를 實現함을 말한 것이요, 그것으로서 親民 即 國民을 새롭게 하며 그것이 完全히 發揮됨에 이르러 至善 即 最高善에 達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道念을 實現하기 爲하여 大學에는 實薦의 德目로서 止·定·靜·安慮의 五術을 말하되 知止而後 有定, 定而後能靜, 靜而後能安, 安而後能慮, 慮而後能得이라하였다. 그리고 보면 이 五術은 곧 主靜的인 本質을 가진 것이요, 이點으로 보아 禪門의 靜坐工夫와 같어 明明德 即 鍊心의 活法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佛敎는 어떠냐하면 涅槃入寂을 道德의 目標로 삼고 坐禪入定을 修道의 本義로 삼음은 널리 잘 아는 바이다. 佛敎의 人生觀이 本來가 靜寂을 主로 삼는 것은 뚜렷한 일이므로 더 說明을 要치 않는 바이다. 또 道敎로 말하면 亦是 無爲自然을 根本精神으로 삼고 靜虛를 主로 함이 뚜렷하며 나아가 神道의 修行을 말하자면 一切의 罪機를 禳祓하여 神을 齋祭함에 跪拜入神하는 神人 一體의 境地이니 또한 主情的이라 하겠다.

三

다음에는 直觀的이라는 點을 들 수 있다. 即 모든 事物이며 自然이며를 觀察하는데 한갓 理論에 기우리지 않고 말하자면 超論理的인 直觀의 方法으로서 그 本質을 把握하는 것은 널리 東洋人의한 特色이라 할 것이다. 藝術이고 學問이고 道德이고 宗教이고 할 것 없이 모든 思想文化의 領域에 있어서 東洋人은 優秀한 直觀의 能力을 發揮하고 있다. 直觀이라 하면 西洋思想에 있어서도 論理主義 또는 經驗主義에 對立하여 思考形式의 하나로서 一派를 이루고 있거니와 이에 比한다면 東洋에 있어서는 여러 思考形式의 中에서 直觀이 가장 優位를 點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宋學의 慧星程明道의 思想은 그 全體를 通하여 본다면 天地生生の 德을 默識體認함에 있다 할 것이다. 여기에 默識이라 함은 或은 自得이라 하고 或은 神悟라하여 直覺的으로 그 本體를 把握할 것을 말한 것이다. 朱子が 程子の 思想을 評하되 『渾淪然太高, 學者難看』이라 함은 程子の 學說이 全般的으

로 理論을 超越하여 있는 까닭이다. 程明道는 學問工夫의 本義를 忠信修辭敬直義方에 두고 修養의 窮極을 定性識仁에 두었다. 定性이라 함은 將迎이 없고 內外가 없는 絶對境에 安住함을 말하고 宇宙의 本體인 上天의 德을 仁이라 하여 天地로더부러 一體 가됨을 識仁이라하였으니 이 識仁의 길은 한갓 直觀에 義할 뿐이요. 立德의 本義는 곧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子程뿐이 아니라 性理學者들에 있어서는 흔히 頓悟入神을 說破하였으니 이것은 곧 佛敎와 共通한 特質을 가추어 있는 까닭이다.

佛敎에 있어서는 널리 아다 싶이 自我를 內觀하여 眞如를 把握하고 活然大五하여 見性함을 修道의 目的으로 삼으니 이른바 『觀自在』의 思想은 곧 이것을 잘表示한 말 일 것이다. 더욱이 禪門에서는 敎外 別傳 不立文字라 하여 理論을 超越하고 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하여 事物現象에 拘泥치않고 觀自在의 境地에 移入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觀이라 함은 肉眼이 아닌 心眼으로서 智慧로 超越하여 그 本質을 端的으로 把握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因하여 自由無碍의 境地에 達할 수 있다는 것이다. 心經 略疏에 觀自在를 解釋하되 『於事理無碍之境, 觀達自在故立此名, 又觀機往救自在, 無關故 以爲名이라하였다.

또 道敎에 있어서 老子는 宇宙의 本體를 無라하고 또는 虛라고도 하였다. 그것은 우리의 五官으로서는 捕捉할 수 없는 것이요. 經驗을 超越한 것이므로 오직 直觀의 方法으로 債得할 뿐이라 한다. 亦是認識의 方法을 理論智에 두지 않고 直觀智에 다 두는 것이다. 藏子의 依하면 이 直觀智를 眞智라 하여 大體가 무엇인가를 알아 몸소 그 本體와 合一할 수 있는 것 이라하고 理論智即 人間通商의 智慧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直觀的 人生觀은 그 裏面에 正義的인 것을 根底로 삼는다. 이 點에 있어서 西洋思想이 主智的이요. 分析的인 것과 比較하여 東洋思想의 特異한 點이있다. 日本의 神道에 對하여 『메-순』이라는 西洋人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神道の 人生觀은 主智的이 아니다. 그것은 分析的이 아니요. 또한 論理의 段階를 지나지 않고 實在에 關한 意識的 直觀的 知識에서 發生한 것이다. 그러므로 日本人은 主智主義的 形式論理學에 立脚한 解釋에 對하여 不斷히 反抗하여왔다』云云. 實로 日本 精神에는 直觀的 正義的 要素가 優位를 占하고있는 것이 明白하다.

儒敎의 仁이며 佛敎의 慈悲이며 道敎의 自然이며 神道の 清明直心이며 모두가 靜意의 根據에 선 것이 틀림 없을 것이다.

四

셋째로 抱擁的 또는 全體的인 點을 들 수 있다. 그것은 特히 社會生活의

原則이다. 元來 人生의 問題를 根本的으로 생각함에는 반드시 普遍的 原理를 把握하여야 할 것이므로 人生觀이라하면 東西를 勿論하고 抱擁的이요. 綜合的인 것을 要求할 것이나 西洋人에 있어서는 그 思考의 方法이 分析的이요. 理智的이요. 部分的인 만큼 모든 思想文化의 領域에 있어서 또한 그 色彩가 濃厚한 것이있다. 于先 西洋에 있어서는 社會의 學位가 個人이 되고 따라서 個人主義가-勿論 利己主義와 區別할 것이지만-그 原則으로 되어 있음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家族制度에 있어서도 家族은 곧 個人의 集成體가 되고 夫婦가 中心이 되어 一旦 夫婦가 分離한다면 그 家族은 벌써 分散되고 만것이다. 이에 對하여 東洋의 家族制度는 이른바 大家族制라하여 『집』이라는 것이 嚴然한 實在로서 父子가 中心이 되어 父祖子孫을 通하여 家系連綿을 要求하게 되고 或時 夫婦가 分離한 境遇라도 그 家族은 그대로 存續하며 家長은 그 집의 代表로서 社會의 單位를 形成한다. 그러므로 家族은 한 全體로서 家長의 統率下에 生活한다. 日本에 있어서는 이러한 原則이 그대로 國家存立의 原則이 되어 一大家族主義國家를 形成하였다. 即 皇室을 本家로 삼고 國民은 分家가 되어 渾然 一體를 이루어있다. 그러므로 日本에 있어서는 忠孝 日本의 道德觀이 確立되어있다.

儒敎의 精神은 修己活人の 思想에 要約할 수 있으니 個人의 修道完成으로 비롯하여 治國平天下의 大理想을 實現하는대까지 이르러 비로소 道德生活를 達成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儒敎의 本義에 立脚하여서는 오직 道로서 사람을 敎化하고 文으로서 사람을 啓發하는 것이 政治道德의 目標가 되며 따라서 그 抱擁力이 至極히크다.

儒敎는 元來가 大同團結의이니 朱子는 이러한 思想을 支那傳統的인 仁이라는 德으로서 綜合하였거니와 自古로 中原의 試人は 近隣民族에 對하여 오로지 文化政策을 取하여 왔던 것이다. 最近代에 이르러 中國人이 排他的 態度를 取하게된 것은 西洋人의 侵略主義에서 생긴 產物에 不過한 것이다.

佛敎思想의 包擁的인 것은 이른바 大乘의 精神이라는 말에 如實히 나타나있다. 諸惡莫作, 衆善奉行을 修行의 根本으로 삼거니와 언재나 惡人을 能히 包擁하고 大慈大悲의 精神은 自然生物에까지 미치었다. 慈悲는 佛敎道德의 骨目인 六波羅蜜中檀(布施) 波羅蜜의 根本精神이요. 人倫一切諸善百德의 根源이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人間社會生活의 基調가 되어 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日本精神은 오직 包擁的인 것을 本質로 삼는다. 外來의 文化를 다 吸收하고 東西古今의 思想을 取擇하여 一大綜合의 思想文化를 形成하고 있음은 곧 大和의 精神에서 出發한 것이다. 日本의 全體主義는 建國以來의 일이니 神武

天皇의 御皇謨에 『兼六合以間都, 掩八紘爲宇』라는 말이 이것을 잘 表示하고 있다. 곧 八紘以宇의 精神은 日本肇國의 大理想이니 그것은 大義를 世界에 宣揚하고 大東亞를 一體協同케하며 나아가 萬邦의 協和를 期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건대 東洋의 思想은 至極히 廣範하고 深遠함을 알 수 있으니 實로 東洋固有의 思想文化를 世界에 宣揚함은 곧 吾人의 大任務라 할 것이다.

-(一六·五·二八)-